

5분 내 출동... 빠른 치료 · 이송 환자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



응급의료 취약지 많은 전북지역
중증환자 신속 이송 필요성 커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운항 중



외상 · 출혈성 급성뇌졸중 · 관상동맥 등 중증응급환자 생명지킴이로 거듭

2011년 9월 국내 최초로 운항을 시작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일명 닥터 헬기)는 응급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기관 취약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환자 이송으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전북도내에서는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사진)이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 헬기)를 공식 운항 하면서 도내 응급환자의 희망이 되고 있다.

닥터헬기는 거점 병원에 배치 돼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한다.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현재 원광대학교병원을 포함 전국적으로 6개 지역 병원에서 운항 중에 있다.

원광대병원이 전국 여섯 번째 닥터헬기 운항 병원으로 선정된 이유는 전북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 필요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동서 175.5Km, 남북 95Km로 동부는 산악 지형이, 서부는 농경, 섬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많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수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원광대병원에서 운용한 닥터헬기는 지난 5월 말까지 연간 총 170회의 출동 요청을 받았다. 그중 환자 이송 137건, 중단 6건, 기각 27회로 월간 11.4건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광대병원 닥터 헬기로 이송된 137건의 환자별 질환 유형은 중증외상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출혈성 급성뇌졸중 34건, 그 뒤를 이어 급성관상동맥 20건을 차지했고, 기타 응급중증질환이 42건으로 나타났다.

닥터헬기 이용 연령대별 후송 환자는 50대가 38명으로 27.8%, 60대 19.8%, 70대 18.2%를 차지했고 80대 이상도 16.8%를 차지 고령 환자 비중이 높은 전북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원광대병원에 배치 될 닥터 헬기 기종은 이탈리아 아구스터 웨스트랜드사에서 제작한 AW-109그랜드 뉴로 최대 이륙 중량은 3,175Kg이며 순항속도 시속 310Km, 항속거리 859Km, 운행 반경은 70Km~100Km 이내다.

닥터헬기 출항시에는 가장, 부기장의 응급의학과 의사 1명,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이 탑승하게 된다. 닥터헬기 탑승인원은 6~8명이다.

닥터헬기 내부에는 인공호흡기, 심장제세



연간 170회 출동 요청받아
월마다 11.4건 환자 이송
환자별 질환 유형으로
중증외상이 가장 많아
헬기 내부에 인공호흡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들 탑재돼
환자 상태 맞는 응급치료 시행

동기, 이동형 초음파진단기, 자동흡부 압박 장비, 정맥 주입기, 이동형 기동삽입기, 이동형 혈액화학검사기 등을 비롯, 각종 응급의료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 할 수 있다.

한편 닥터헬기의 운항 시간이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한정 돼 있어 야간 중증응급환자 후송을 할 수 없다. 또한 원광대병원 닥터헬기의 지난 1년간 출동 중단 사유 중 기상 악화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볼 때 야간 운항과, 심각하지 않는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출동이 가능한 중형 헬기 배치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북도 14개 시·군중 11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서 닥터헬기 배치로 신속한 이송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및 산악·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히 진행, 중증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한 환자 후송을 위해서는 닥터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 할 수 있는 많은 인계점 확보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꾸준한 관리가 요망된다.

질문별 골든타임을 살펴보면 중증외상은 1시간, 심혈관질환은 2시간, 뇌혈관질환은 3시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하다. 원광대병원 닥터 헬기의 출동시간과 환자 후송 병원 도착 시간이 평균 45.5분으로 집계 돼 추후에도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 헬기는 첨단 의료 장비를 구비한 중증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 헬기로 이용 시 환자·보호자 이송 요청 병원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단, 환자처치와 약물 사용은 응급실 진료비와 동일)

닥터 헬기 신고 및 전원은 항공의료팀(063-837-8333), 기타 문의는 전화(063-837-8335)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장영민 기자

순창의 전통장(醬), 세계인의 일품소스(SAUCE)

제12회 순창장류축제

2017 순창 세계소스박람회

2017.10.20(금)~10.22(일) 3일간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0~2017 8년연속 문화관광축제

- * 순창읍내, 공설운동장 앞 ↔ 축제장 셔틀차량운영
- * 붉은옷 착용시 축제장 상품구매 할인 혜택
- * 축제 대표 프로그램
 - 2017인분 고추장 떡볶이 파티
 - 장류 주먹밥 모자이크 만들기
 -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 고(鼓)추(秋)장(場)락(樂) 퍼레이드
 - 화끈락(樂) 페스티벌
 - 우리가족 떡볶이 만들어먹기, 전통장류 소스만들기 등
 - 민속마을 불빛쇼(EDM), 좀비야 놀자 등 야간 프로그램 운영

주최/주관: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한국관광공사

www.jangfestival.co.kr